



5  
동북아시아

#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개관, 보호 과제 및 전략

압히만유 싱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장

## I.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현황 개관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보유한 종교, 전통지식, 기술, 관습 등에 구현된 살아있는 문화 및 전통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그 형태와 본질에 있어 손상되기 쉽다. 무형문화유산은 생생하고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되며 이를 통해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이 표출되고 보존되고 있다.

유네스코베이징사무소가 관할하는 5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은 구전전통, 공연 예술, 관습과 의례에서부터 축제행사, 의복, 공예품 및 음식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곳이다. 아름다운 풍광과 뚜렷한 특색을 지닌 동북아 지역은 70여 개 민족이 존재하며 250개가 넘는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권이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전통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키며 수세기 동안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왔다.

동북아는 오래 전부터 문화적 다양성의 핵심이자 끊임없는 창의성의 원천인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네스코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 일본 도쿄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ACCU)는 1971년 설립 이래 역량 강화 및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분야에서 다양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 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의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제도를 강화하고 증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 중국은 지난 수십년 동안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지정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7년 이후 쓰촨성 청두 지역에서 매년 국제무형문화유산축제를 개최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왔다.
- 몽골 역시 수년 전 국립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설립하여 국가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해 왔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동북아 5개국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 중 4개국은 2004년과 20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최초로 비준한 20개 당사국에 포함된다. 이는 각국 정부들이 무형문화유산 표현물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기초를 마련하고 초기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동북아 국가들은 유네스코 걸작 선정 프로그램에 총 11종목의 유산을 제출하였으며 모두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2006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된 이후, 동북아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해 왔다. 2011년 현재 한중일 3개국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유산 71종목은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 목록인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63건)과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8건)에 등재되어 있다. 이는 총 등재유산 수의 30%를 넘는 수준이며, 협약 이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의지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전략적 활동

급격한 사회변화, 세계화 및 도시화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전통이 훼손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이 가속화 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노력은 문화정보의 수집, 기록, 보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고 재구성하며 전승하는 개인과 단체 나아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동북아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한다. 이 협약은 지난 40여 년간 동북아 5개국에 마련한 다양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 1962년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몽골 정부는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수많은 전통의 근간이 되는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발굴·등록 및 보유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였다.
- 2010년 북한은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이러한 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조선무형문화유산보호협회를 설립하였다.
- 올해 초, 중국 무형유산보호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중국 내 무형유산 지정, 목록 그리고 다른 보호 조치를 위한 종합적인 표준 체계를 세웠다.

동북아지역은 오래 전부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 및 전승 활동과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분야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국제협력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중일 3개국은 2008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 산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센터(카테고리 2기구)를 각국에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센터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2년 초에 개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10월 오사카에 설립된 일본 센터는 과학, 기술, 예술 연구 및 방법론을 육성·조율·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 현재 대전에 위치한 한국 센터는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에 공식 출범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동북아 국가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하여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중일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들은 이 지역 역량 개발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단절, 분절, 규격화를 막기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조직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동북아 전략의 기본 바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공동체 통합과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지식 전승 및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은 사회적 결속 유지에 핵심으로 작용하며 지역 주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매개가 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증진하고, 공동체,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과 교류 및 연구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협약 당사국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당사국 간 협력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5개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공통 전략은 따라서 공유된 유산(shared heritage)이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3년 협약의 가치 아래, 모든 살아있는 유산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공동체의 염원에 따라 보존될 가치가 있다. 2003년 협약은 공동등재를 분명히 권장하고 있다. 동북아는 문화협력이 지리적 경계와 정치적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몽골과 중국 정부는 2011년 공동 무형문화유산위원회를 설립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위원회에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등 정기적으로 양국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왔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공조와 협의라는 복잡한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카테고리 2센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동북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과제

효과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산과 전략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수행할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전통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며 기록하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소지역 및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종목 및 보유자들, 나아가 그러한 전통을 보존하는 주요 기관과 개인들을 발굴·기록하는 작업을 뒷받침하는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련 기록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기술적 노하우의 부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센터의 주도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산 보호의 여러 측면을 다룬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활동은 가능한 소지역 및 지역 교류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거리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적절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발굴 및 목록화라는 초기 단계의 조치 이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유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 일부는 공식인증을 수여하고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승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몽골의 경우, 수년간 한국의 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의 인간문화재제도를 수립하였다.

위기에 처한 동북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사례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 분야의 경우, 일본 센터의 주도 하에 소지역 차원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지역 내 연구기관들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에 대한 투자는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켜 유산의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모든 이해당사자들, 특히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 전통을 계승하는 개인, 단체,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소지역 차원의 프로젝트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동북아 내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 센터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3년에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위협에 처한 종목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공유된 유산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여러 국가가 함께 공동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의 유관기관들은 정기적인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동시에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지원해 온 동북아 5개국 정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10주년 기념행사가 이러한 성과들을 축하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또한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중국과 몽골은 2013년 협약 10주년을 기념하는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는 내일 발리에서 개최되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발표될 것이다. 이 기회를 통해 동북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기념행사에 활발히 동참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아태지역을 담당하는 카테고리 2기구들의 창립을 통해 동북아시아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 분야의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또한 동북아 지역이 아태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까지 아우르는 협력의 촉매제가 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를 위한 협력과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명언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그 어떤 문화도 배타성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